

U-20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KBS 뮤직뱅크, 19일 전북대 대운동장서 특별방송

최정상급 K-pop 스타, 전주의 밤 달군다

오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축제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풍성한 전야 행사가 열린다.

특히, U-20 월드컵 개막도시 전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K-POP 공연과 불꽃놀이, 3D 워터스크린 플라잉 보드 쇼 등 화려한 볼거리가 마련돼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전주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FIFA U-20 월드컵 전주 개막기념 KBS 뮤직뱅크 특별방송이 19일 오후 5시부터 90분간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또, 오후 8시부터는 덕진공원에서 불꽃놀이와 3D 워터스크린 플라잉 보드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KBS 뮤직뱅크 특별방송에는 EXO-CBX, EXID, 트와이스, 트립플 H(현아), VIXX, 다이아 등 인기 정상급의 20여개 팀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개막 전야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오는 19일 오후 5시부터 90분간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KBS 뮤직뱅크 특별방송을 연다. 이날 EXO-CBX, 트와이스, EXID, VIXX 등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 스타들이 출동한다. 사진은 결그룹 '트와이스'.

트와이스·VIXX 등 인기스타들 한자리에 모여 덕진공원에서 불꽃놀이·3D 워터스크린도 열려

뮤직뱅크는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대표 음악프로그램으로 이번 특집 방송을 위해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전주를 찾으면서 지난 15일 티켓 배부 2시간 만에 조기 매진되는 등 지역 팬들을 기대와 관심을 집

중시키고 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북은행과 전북대학교, 전라북도청, NS홈쇼핑, 예코시티, NH농협은행 전주원주시군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에는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입장할 수 있

으며, 공연관람은 배부된 티켓을 소지하고 당일 현장에서 입장 팔찌로 교환 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이후, 오후 8시부터는 덕진공원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불꽃놀이는 △세계청소년의 화합 △U-20 월드컵 성공기원 △U-20 월드컵의 열정 △대한민국 대표팀 승리 기원 등 총 4막으로 나뉘어 총 8천여발의 불꽃이 대회 개막을 축하하게 된다.

오후 8시 30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화려한 3D 워터스크린 플라잉 보드 쇼가 진행돼 전야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전주에서는 전야행사 이외에도 이번 월드컵 개막에 맞춰 전주한지문화축제와 문화재야행프로그램, 비보이 그라프리카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에서 개막하는 이번 U-20 월드컵은 대회가 임박한 15일 현재 개막전 티켓이 3만2천여장이 예매되는 등 대회 흥행이 예고되고 있다.

/김민근 기자



현충유물전시관 개관식

16일 김계 문화예술회관에 현충유물전시관 개관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박수를 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농협 여직원 몰래카메라 사건, 내부 직원 소행 가능성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고 있는 전주농협 여직원 몰래카메라 사건이 내부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전주농협 여성 팀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가 발견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몰래카메라 손목시계를

평소 여직원탈의실과 같은 층 사무실을 쓰는 농협 본점직원 A씨가 자주 착용한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소환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 관계자는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내부 직원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동계올림픽 이용 부동산 사기친 일당 8명 붙잡혀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해 73억원 상당의 기획부동산 사기를 일으킨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6일 브리핑을 열고 강원 평창과 춘천의 땅지 7만8000㎡를 12억에 매입한 후 245명에게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61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리며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한모(59)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린 후 12억에 매입한 땅지를 KTX 전철역이 들어온다며 73억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개발행위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KTX 전철역이 들어온다. 대기업이 들어오고,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주겠다는 가짜 인증서를 나눠주고, 현지 확인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여건이 좋은 다른 땅을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결과 이들이 판매한 땅지는 산 정상 근처에 있는 땅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더구나 소유권 등기도 개인 명의가 아닌 공동 지분 명의로 설정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들은 땅 판매를 위해 주부사원 50명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해 매일 2시간씩 주입식 교육을 하고 판매대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친인척들에게 판매를 유도했다.

선량한 시민 245명을 울린 범죄임에도 일당 중 일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근 기자

이들은 땅 판매를 위해 주부사원 50명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해 매일 2시간씩 주입식 교육을 하고 판매대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친인척들에게 판매를 유도했다.

선량한 시민 245명을 울린 범죄임에도 일당 중 일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근 기자

이들 일당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린 후 12억에 매입한 땅지를 KTX 전철역이 들어온다며 73억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개발행위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KTX 전철역이 들어온다. 대기업이 들어오고,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주겠다는 가짜 인증서를 나눠주고, 현지 확인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여건이 좋은 다른 땅을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결과 이들이 판매한 땅지는 산 정상 근처에 있는 땅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더구나 소유권 등기도 개인 명의가 아닌 공동 지분 명의로 설정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들은 땅 판매를 위해 주부사원 50명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해 매일 2시간씩 주입식 교육을 하고 판매대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친인척들에게 판매를 유도했다.

선량한 시민 245명을 울린 범죄임에도 일당 중 일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근 기자

음식점 업주 공갈 종업원 구속

음식점에 취업한 후 행정기관에 허위 민원을 제기한다는 협박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업무방해와 상습공갈 혐의로 정모(44, 여)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2013년 부터 최근까지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10일 이내로 일한 후 업주에게 공갈협박으로 900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무방해로 5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업주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행정기관에 위생불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각종 허위 민원을 제기해 업주를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취직 한 음식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업주가 종업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며칠만 일 해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악용했다.

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4명의 업주에게 2000만원을 요구해 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근 기자

대선 과정 정치행사에 대학생 동원한 교수 등 무더기 '법정행'

헌 당사 전 대표 지지모임행사 학생 동원 우석대 교수 2명 국민당 당내 경선 원광대생 불법 동원 당 관계자 구속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전북 지역 대학교 학생들을 불법으로 정치 현장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교수와 당 관계자, 총학생회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모임 행사에 우석대학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차 기부행위)로 우석대 대권도학과 전 학과장인 최모 교수와 하모 조교수 등 2명을 구속하고 전·현직 연구원 2명을 입건했다.

최 교수 등은 지난 2월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7000원 상당의 영화 관람을 하게 하는 등 총 825만17000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최 교수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최 교수는 "학과 행사의 일일으로 영화도 보고 음식도 먹었다"면서 "포럼에 참석한 것은 견학의 한 수단으로 간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지난 5·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당내 경

선과 관련해 대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경선 선거인 매수)로 국민의당 관계자 A(31)씨를 구속하고, 원광대 총학생회장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첫 순회경선이 열린던 광주 감내중권 변선센터에 원광대 학생들을 경선선거인으로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선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B씨에게 지시하고 교통 편의 제공을 주선하는 한편 경선 참여자에게 담례 회식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인솔자 6명에게 관광버스 6대를 이용, 경선선거인 200여 명이 경선에 참여토록 투표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 광주경선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버스에 나눠주고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확보하고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 모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B씨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